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3단계 계획 추진, 카운트다운!!

상반기, 농업계의 신선한 화두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지난 3월 한농연은 ‘농어촌복지’에 관한 화두를 과감히 꺼내들었다. 그 이유는 WTO체제이후 농업·농촌은 위기에 닥쳐있고, 도·농간 소득·문화·환경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어촌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선진국의 예처럼 농어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농어촌·농어민 문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범정부적 노력을 통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들어갔다. 물론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은 ‘공감대 형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선전활동이다. 한농연 172개 시·군연합회와 1500여개 읍·면회 조직을 총동원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문 부착활동을 비롯해, ‘현수막 걸기운동’을 전국 대대적으로 벌여내

면서 성공적인 ‘분위기 형성’을 이루어 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한농연의 상반기 활동은, 제 농민단체와 농업계는 물론,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5월 16일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각계의 관심과 지지를 한데로 끌어 모으고, 내용을 보다 풍부화 시킴으로써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돌파구, 3단계 계획 추진!!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7월, 상반기 ‘특별법 제정운동’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운동의 계획추진에 곧바로 들어갔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의 입법추진과 제정을 위해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제시한 「3단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추진계획」(이하, 3단

계 추진계획)은 크게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분위기 확산. 둘째, 9월 정기국회 내 입법추진. 셋째,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이다.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대선 국면을 맞아 '농정개혁의 해'로 선포한 한농연의 입장에서는 기필코 놓칠 수 없는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3단계 추진계획'은 하반기 한농연사업과 국정외 흐름에 맞추어 3단계로 나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1단계인 7월 末~8월 末에는 전국 규모의 '1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운동의 확산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8월 12일 충남 태안에서 개최될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해 '만화전시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 중순에는 전국 농촌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2단계인 9월에 접어들어서는 정기국회 개원 전에 '특별법' 법안 초안을 완성

해, 기자회견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국회 청원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10월 이후에는 12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통령선거 대비 공약포함 관철활동'을 비롯해 '특별법'의 연내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입법추진 대책반'으로 불을 당긴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제3단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입법추진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안마련'과 '입법추진'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책반'은 법안작성팀과 입법추진운동팀으로 이뤄지게 되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구성원으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법안작성팀'은 한농연을 비롯해 농경연, 법조계, 농협(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의 전문가들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구 구성(안)

기 간	주 요 내 용
1 단계 7 ~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전국대회 "만화전시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8/12~8/14) • '전국 농촌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 (8/19~8/31)
2 단계 9/1 ~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인 서명운동' 지속적으로 전개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마련 • 기자회견 개최 • 국회청원 활동 전개 (9월 중순 국회개원)
3 단계 10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대비 공약포함 관철 활동 전개 • 국정감사(10월 초)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연내 입법촉구 활동 전개



로 구성되어 법안내용을 심의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입법추진운동팀'은 한농연과 함께 농협이 전국조직이 제 농민단체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벌여낼 계획이다.

위에 제시된 사안별 '3단계 추진계획(안)'을 담아본다.

1.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기간 : 7월 末~8월 末
- 대상 : 각 도·시·군·읍·면·동지역 회원, 농민 및 도서지역 시민 대상

2. 전국대회 「만화전시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 기간 : 8월 12일(월)~8월 14일(수) / 전국대회 기간 中
- 내용 :
 - '전국대회'를 통해 서명운동 지속
 - 축제의 장을 통해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제정운동에 대한 인식 확산

3. 전국 농촌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

- 기간 : 8월 19일(월)~8월 31일(토)
- 목표 : 182개 농촌지역구 의원 중 50%이상 서명 달성

4. 기자회견 개최

- 기간 : 9월 첫째 주
- 내용 :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및 주요골자 발표

5. 법안초안 마련 및 청원(의원)입법 추진

- 기간 : 9월 정기국회 前

6. 대통령선거 대비 공약 포함 관철 활동 전개

- 기간 : 10월~11월
- 방안 : '대선평약 포함' 관철을 위한 활동 전개

〈한농연 광고〉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농연은 2002년 주요핵심 사업으로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대응 활동을 선정하고, 「대선평약 개발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이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농연이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할 농정공약에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우편 접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우 138-802)
- Tel : (02)3401-3543
- Fax : (02)3401-6549
- Home page : www.kaff.or.kr 자유게시판, 정책제안실
- E-mail : kwak121@chollian.net
- 담당자 : 정책 조정실 임준제 대리